오늘의 날씨와 생활

7월 16일 목요일 음 6월 3일 (10물)

기상정보

오전	강수 확률	오후
30%	제 주	60%
30%	성 산	60%
30%	고 산	30%
30%	서귀포	60%

주간예보 <문의 ☎ 국번없이 131>

내일	흐리고 비	25/31℃
모레	흐리고 비	25/31℃

흐리고 비

제주는 흐리고 가끔 비가 오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25~26℃, 낮 최고기온은 29~31℃로 예상된다. 소강상태 많겠으나 아침부터 저녁 사이 곳에 따라 비가 내리겠으니 유의해야겠다.

	해뜸 05:35 해짐 19:45		달뜸 07:20 달짐 21:17
물때	만조 00:01 11:41		간조 06:30 18:19

자외선지수 높음 / 산불위험지수 낮음

미세먼지 (PM10)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초미세먼지 (PM2.5)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월드뉴스

美, 대이란 해상 봉쇄 재개… 추가 공습도 단행

중동 긴장 국면 재점화

미국이 미 동부시간 14일 오후 4시(한국시간 15일 오전 5시)를 기해 대이란 해상 봉쇄를 재개했다.

해상 봉쇄 개시를 한 시간 앞두고 이란에 대한 추가 공습에도 나섰다.

미군 중부사령부는 "이란 항구와 연안 지역을 오가는 선박에 대한 해상 봉쇄를 재개했다"며 "미 해군 전함 20척 이상과 군용기 수백 대가 작전을 수행 중"이라고 밝혔다.

대이란 해상 봉쇄는 이란 항구를 오가는 선박 출입을 차단해 원유 수출과 해상 물류를 겨냥, 이란의 외화 수입원을 압박하기 위한 조치다.

호르무즈 해협의 선박. 연합뉴스

중부사령부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상선 공격에 이용되는 이란의 능력을 약화하기 위해 추가 공습을 개시했다"고 밝혔다.

미국은 지난달 종전 양해각서(MOU)에 따라 해상 봉쇄를 해제했으나, 최근 이란의 상선 공격을 MOU 위반으로 규정하고 휴전 종료를 선언한 뒤 공습과 해상 봉쇄, 제재를 강화하고 있다.

이란도 걸프 지역 미군 기지를 겨냥한 보복 공격을 이어가면서 중동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연합뉴스

한라일보 제주의대표신문
발행인·인쇄인·편집인 김한욱 편집국장 고대로
㊞ 6318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사로 154
대표전화 (064)750-2114
인터넷 서비스 http://www.ihalla.com e-mail : hl@ihalla.com
광고접수 본 사 750-2828 / FAX 752-7448 서귀포지사 732-5552 / FAX 732-5559
기사제보 750-2200 / FAX 752-9790
구독신청·배달 750-2315
구 독 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1989년 4월 22일 창간 / 등록년월일:1988. 12. 5 등록번호: 제주, 가00002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목요담론

제주, '쉼'을 파는 섬에서 '경험'을 파는 섬으로

최 화 열
평택대학교 교수

여름방학이 시작되면서 제주공항은 다시 여행객들의 발걸음으로 활기를 되찾고 있다. 가족 단위 관광객과 청년 여행객, 해외 방문객들이 푸른 바다와 오름, 숲길을 찾아 제주를 방문한다.

여름은 여전히 제주 관광의 성수기다. 그러나 이제 관광의 성패는 방문객 수만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왔는가보다 제주에서 어떤 경험을 했고, 어떤 추억을 안고 돌아가는가가 더욱 중요해졌다.

과거 제주는 '쉼'의 대명사였다. 일상에 지친 사람들이 자연 속에서 휴식을 얻기 위해 찾는 곳이었다.

하지만 여행의 목적은 빠르게 변하고 있다. 오늘날 관광객들은 단순히 풍경을 감상하는 데 만족하지 않는다. 지역 주민과 교류하고, 로컬 음식을 만들고, 전통문화를 체험하며 자신만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여행을 원한다. 여행의 가치는 '무엇을 보았는가'에서 '무엇을 경험했는가'로 이동하고 있는 것이다.

여름방학은 이러한 변화를 가장 잘 보여주는 시기다. 아이들에게 제주는 살아 있는 교실이 될 수 있다. 해녀문화와 세계자연유산, 곶자왈 생태계, 오름 탐방, 농어촌 체험과 지역 예술가들의 공방 프로그램은 단순한 관광상품이 아니라 자연과 문화, 생명의 가치를 배우는 교육의 장이다. 부모에게는 가족이 함께하는 소중한 추억을, 아이들에게는 오래도록 기억될 경험을 선물한다.

서비스마케팅의 관점에서 경험은 가장 강력한 경쟁력이다. 숙박시설이나 음식은 다른 지역에서도 제공할 수 있지만, 제주의 자연과 역사, 사람들의 삶이 어우러진 경험은 쉽게 모방할 수 없다. 지역 축제와 전통시장, 마을 여행, 로컬 브랜드, 문화예술 콘텐츠를 유기적으로 연결할 때 관광객의 만족도는 높아지고 지역경제도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이 만들어질 수 있다.

인공지능(AI)과 디지털 기술도 이러한 변화를 뒷받침할 수 있다. 관광객의 취향과 이동 경로를 분석해 맞춤형 여행을 제안하고, 숨은 관광지와 지역 상권을 연결하는 서비스는 제주 관광의 새로운 경쟁력이 될 것이다. 기술은 사람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지역을 더욱 깊이 연결하는 수단이 돼야 한다.

제주의 미래 경쟁력은 아름다운 자연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자연에 이야기를 더하고, 사람을 연결하며, 잊지 못할 경험을 만드는 데 있다. 이번 여름방학 제주를 찾는 관광객들이 아름다운 풍경뿐 아니라 따뜻한 사람과 특별한 기억을 가슴에 담고 돌아간다면, 제주는 다시 찾고 싶은 섬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이제 제주 관광은 '쉼'을 제공하는 시대를 넘어 '경험'을 디자인하는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 그것이 제주다움을 지키면서도 지속가능한 관광의 미래를 여는 가장 확실한 길이다.

열린마당

숲나무와 '스튜디오 지브리전 in Jeju'

문 윤 택
제주대학교 AI연구센터(언론학 박사)

지난 주말 '스튜디오 지브리전 in Jeju' 전시회를 다녀왔다. 지브리는 '이웃집 토토로',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등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작품으로 유명하다. 스튜디오의 상징인 '이웃집 토토로'는 인간과 자연의 공존과 사랑을 동심의 시선으로 담아낸 작품이다. 숲의 정령 토토로는 아이들의 상상과 호기심을 품어주는 존재이자 숲의 의미를 상징한다.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일본 작품의 평가가 아니라 숲과 인간의 공존이다. 산업화 시대의 경제는 공장에서, 정보화 시대의 경제는 데이터에서 나왔다. AI 시대에도 숲은 인류 생존을 위한 영원한 '상수'다. AI 시대일수록 인간의 창의력과 사유 능력을 키우는 공간으로서 숲의 가치는 더욱 커질 것이다.

또한 기후위기 시대에 산림은 지구상에서 가장 거대한 탄소흡수원이다. 데이터센터와 AI 연산이 늘어날수록 전력 소비와 탄소 문제도 커지는 만큼 AI 시대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산림은 필수적인 전략 자산이 된다. 과거에는 석유를 가진 나라가 부자였다면 미래에는 탄소를 흡수하는 능력을 가진 나라가 새로운 경쟁력을 갖게 될 것이다. 자연과 경제는 대립 개념을 넘어야 한다. 우리는 한라산과 숲에서 새로운 스토리텔링을 발굴하고 창작의 계기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번 전시회는 필자에게 자연 속 동심으로 돌아가는 무한한 상상력과 따뜻한 사랑의 의미를 다시 일깨워 주었다.

화북 119센터 소방 실습을 마치며

한 은 빈
제주한라대학교 응급구조과 2학년

필자는 이번 여름 화북119센터에서 4주간 소방 현장실습을 했다. 실습 기간 동안 화재와 교통사고 등 다양한 현장을 함께하며 학교에서 배운 이론과 술기를 실제 현장에 적용할 기회를 가졌다. 무엇보다 이론으로는 경험할 수 없었던 현장의 무게를 느끼며 생명의 소중함과 사명감을 배우는 값진 시간이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출동은 심정지 환자였다. 평소 밝은 미소로 대해주시던 소방관님들은 현장에 도착하는 순간 누구보다 침착하고 신속하게 심폐소생술과 전문응급처치를 이어가셨다. 작은 실수 하나가 생명과 직결되는 상황에서도 빈틈없이 역할을 수행하는 모습을 보며 전문성과 사명감을 느낄 수 있었다. 필자 또한 술기를 보조하며 현장의 일부가 됐다는 사실이 큰 책임감과 보람으로 남았고, 그날의 경험은 훌륭한 소방관이 돼 현장에서 함께하는 동료가 되겠다는 다짐으로 이어졌다.

아울러 응급실은 환자의 중증도에 따라 진료가 이루어지며, 구급차를 이용한다고 진료를 더 빨리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도 다시 한번 깨달았다. 119는 위급한 긴급 상황에서 꼭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올바르게 이용되기를 바란다.

마지막으로 현장에서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아낌없이 나누어 주신 센터장님과 팀장님, 모든 반장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생명의 최전선에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모든 소방관님들께도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